

미
의학계

약품서 나타나는 성차별로 논란 일어

‘남성 중심적 개발로 여성에 효능 적다’ 미 국립의료원 공격 당해

한 알의 약품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의 증거로 미국 의학계가 뜨겁다.

기존의 의학연구와 약품개발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여성에게는 효능이 적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미국 국립의료원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비즈니스 위크> 7월20일자에 실린 의약품 성차별 논쟁의 초점이 되는 증거는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의 신진대사와 신체기능은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같은 약품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임에도 시판중인 대부분의 약품이 실험용 쥐나 남성을 대상으로 실험,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

증거로 제시한 사례를 보면 관절이 붓거나 낭창(결핵성을 띤 피부병의 일종)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연50만명의 환자 가운데 90%가 여성이고 이들 중 흑인여성의 발병률이 높지만 병의 원인과 편중된 발병률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다는 것이



▲ 최근 미국에서는 시판되는 약품들이 남성위주로 임상실험, 판매된다는 연구논문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시판중인 약품들도 성별차이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에이즈 치료제 개발도 백인남성위주로 진행되어 에이즈의 확산속도가 여성에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도 성차별적 약품개발 사례로 꼽힌다.

이밖에도 심장병 예방약의 개발시 남·녀의 나이별 발병 시기가 다른 사실이 무시된 채 남성의 발병시기에 초점을 두고 약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판에 따라 91년 미국 국립의료원은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소를 설치해 개발하는 약품의 임상 실험대상에 여성을 포함시켰고, 93년 회계연도에 1억2천만 달러를 투입, 여성 에이즈환자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비난의 화살을 피해갔다.

하지만 강경론자들은 약품설명서에 실험대상과 남녀간 효능의 차이를 의무적으로 명시해

국민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미국 의학계의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투약 효능에 대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 국립보건연구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측은 “성별에 따라 약효능이 다를 것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된 자료와 연구결과는 없다”고 설명한다.

전무한 의학계 연구결과와 함께 제약회사들의 성별에 따른 약품의 개발의지도 발견되지 않는다.

종근당 개발부 천세영 연구원은 “현재 우리의 의약품 개발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며 “모든 약품을 성별 효능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성별로 빈도가 높은 질병을 구분, 실험대상을 조절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